

<나와 엄마>

전체 줄거리 :

얼굴이 약간 상한 채, 티비를 틀어놓고 혼자 로봇놀이를 하는 지성,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들어온다. 엄마는 매우 밝은 표정이다. 방안에서 들리는 콧노래 소리에 살짝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는 지성. 고개를 돌리는 엄마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문을 닫지만 엄마는 지성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한다. 지성은 함부로 방문을 열었다며 혼날까 주눅거리지만 엄마는 공주님같은 옷을 입은 채 마음에 드냐며 옷차림을 자랑한다. 지성이 매우 마음에 들어하자, 지성과 엄마는 항상 공주님 옷을 입기로 약속하고, 또 일을 그만두고 오는 길이라며 앞으로는 지성과 항상 함께하기로 약속한다.

이날 이후, 엄마는 매일 지성을 유치원 앞에서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준다. 지성이 나오면 매우 무거워보이는 모습이지만 아기처럼 업어주고 집으로 향한다. 지성이 잘때도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동화 속 엄마를 비난하고 자신은 지성이 잘못을 하더라도 혼내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성은 변한 엄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엄마는 요정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었을 때, 따뜻한 핫살 아래 아이스크림을 잔뜩 쌓아두고 먹었던 일을 회상한다. 이때 지성은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이 녹을까 봐 걱정이라며 아이스크림을 집에 들어가지고 말했지만, 엄마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아 벤치에서 몇시간 동안 천천히 먹은 기억을 자랑스레 말한다.

어느 날은, 지성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두고 모르는 친구와 실랑이하자, 어디선가 혜수가 등장해 지성을 감싸며 다른 아이를 밀치고 그네에 태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성은 어떤 점이 불안한지 엄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대답을 강요한다. 이런 불안과 다르게 엄마의 행동은 과하다 못해 괴이해보이기까지 하는데도 말이다.

엄마에게 쾅거루처럼 매달려 걸어가는 지성. 과거 혜수가 일할 때라면 일찍 들어오는 날일 것이라는 대화 주제가 나온다. 표정이 굳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늘은 밥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자며 지성을 안아올린다.

어둑어둑해진 저녁시간, 지성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의 경찰관이 다가온다. 지성에게 길을 잃었냐고 물어보는 경찰관. 지성은 엄마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지만 근처에 엄마는 없자 경찰관은 더욱 표정을 굳히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경찰관과 엄마의 전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자 사무적인 목소리의 여성이 받고, 지성의 이름을 꺼내자 한숨을 내쉬며 어쩐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후 경찰관에게 당연하다는 듯 사고를 쳤는지 묻는다. 남자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상황설명을 하자 덤덤한 목소리로 말하는 엄마. 집에 혼자 올 줄 알 거니 적당히 놀아주다 알아서 보내라는 답변을 한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리 들어가 신기한 듯 구경하는 지성이 보이고, 경찰관은 다가가 옆에 앉으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낸다. 일상적인 대화를 걸자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수다를 떠는 지성. 마침 식사하려고 하던 경찰들. 지성에게 먹을래? 라고 물어보자 밥을 먹었다며 잠시 고민한다. 막상 먹기 시작하자 입에 잔뜩 문히며 허겁지

겉 먹는 지성.